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고 있는 가운데 사무엘이 죽었습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는 시대인 사사기를 지나 마지막 사사요 선지자라 할 수 있는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인 사무엘이 죽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이스라엘의 왕으로 있는 사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으로 이끌고 갈 수 있는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스라엘 왕으로써 기름부음을 받았지만 아직 이스라엘의 왕위에는 오르지 못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25장에서는 다윗이 아비가일이라는 아내를 얻게 되기까지의 상황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흔히 성경 안에서 현모양처의 대표적인 인물로 알려진 아비가일은 나발이라는 불량한 부자의 아내였습니다. 다윗이 요청한 도움을 거절한 나발을 죽이기 위해 오고 있는 다윗에게 지혜롭게 대처 함으로써 그 목숨을 지켜주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나발이 죽자 아비가일은 다윗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26장에서는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두 번째 기회를 다룬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 삼 천명의 군사를 데리고 하길라산에 진을 쳤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다윗은 아비새와 함께 사울의 진영에 들어갔습니다. 사울의 모든 군사는 깊이 잠들어 있습니다. 자신을 죽이기 위해 뒤를 쫓고 있는 사울을 제거할 절호의 기회가 찾아 왔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을 죽이기를 거부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은 여호와의 기름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사울이 자신을 위협하고 죽이기 위해 뒤를 쫓고 있다고 할지라도 자신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치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자신은 사울을 피해 도망 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을 눈 앞에 두고도 다윗은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라고 말하면서 단지 사울의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고 말합니다. 사울도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자신이 범죄하였다고 두 번째로 사과하였습니다.

앞서 25장과 26장에서는 다윗이 자신을 대적하는 사람들인 나발과 사울을 죽이지 않고 피를 흘리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27장에서는 블레셋으로 피신을 간 다윗이 그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 그리고 아말렉 사람들을 쳐서 진멸하였습니다. 다윗이 자신의 개인적인 보복은 하지 않는 대신 민족적인 대적들은 앞장서서 진멸하는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내용들을 보면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전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동시에 지도자로서 자질을 갖추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반면 사울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28장에서는 사울의 가장 커다란 죄악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역대상 10장13절에는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인데 하나는 사울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고 또 한가지 이유는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28장에 보시면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 힘든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죽은 영혼을 다시 불러내는 초혼(招魂)에 관한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죽은 후에 사울이 전쟁을 앞두고 신접한 여인을 찾아갑니다. 왜냐하면 6절에 보면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즉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대답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떤 분은 이렇게 질문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사울이 하나님께 여쭈어 보았는데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시지 않으셨으니 이것이 전적으로 사울의 잘못이라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먼저 사울이 하나님께 여쭈어 보았다는 말의 의미를 잘 알아야 합니다. 사울이 하나님께 여쭈어 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전쟁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사울이 하나님을 찾은 것은 단지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지의 여부를 묻는 것에 불과한 것이었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사울이 회개함으로 죄에서 돌이키거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에는 관심이 없고 단지 자신이 이스라엘 왕으로써 전쟁에서 공을 세울 수 있는지에 더 관심이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더 나아가 이 전쟁을 통하여 사무엘이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 왕으로써 자신의 입지를 더욱 확고하게 하기 위한 방편으로 하나님을 찾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사울이 먼저 했어야 하는 것은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이 여러 차례 사울이 하나님을 말씀을 따르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다고 말씀하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거절하였던 것입니다. 사울이 하나님을 대할 때 자신과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으로서가 아니라 한낮 자신의 필요를 채워주는 이방 신들과 같이 여겼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대답하지 않으셨을 때 사울은 곧바로 일어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해야 했지만 사울은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는 최악의 선택을 하고야 말았습니다. 앞서 28장3절에서 사무엘이 죽은 후에 "사울이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울이 다시 신접한 여인을 찾아간 것에 비추어 보면 그들을 쫓아 내었던 것은 단지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한 요식행위에 불과한 것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죽은 영혼을 불러내는 것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성경은 죽은 영혼을 다시 불러내는 이러한 의식이나 행위를 절대로 지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초혼 의식에 대한 것을 성경에 기록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사울에게 이와 같은 일이 있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성경은 인신제사를 허용하지 않지만 이방 사람들이 그러한 악을 행한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러면 신접한 여인이 불러낸 사무엘은 진짜 사무엘일까요? 그것의 진위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사무엘은 진짜 사무엘로 보여집니다. 그 이유를 몇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금 이 사무엘이 하는 말을 보면 사무엘이 살아 있을 때 했던 말을 그대로 반복해서 들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16-18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네 대적이 되셨거늘 네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네게 행하사 나라를 네 손에서 떼어 네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네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네게 행하셨고" 이와 같은 사무엘의 말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이미 사울에게 들려주었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사무엘이 이제 다음 날 일어날 일을 예언적으로 전하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네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라 하는지라" 그리고 31장에서 이 말씀은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만일 이 사무엘이 악한 영이 사무엘처럼 변장을 하거나 둔갑을 한 것이었다면 이와 같은 성취되는 예언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사무엘의 외모가 그가 사무엘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신접한 여인이 본 것은 겉옷을 입고 있는 한 노인인데 사울은 이 사람이 사무엘임을 단번에 알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서 이 사무엘이 사울에게 하는 말로 알 수 있습니다. 15절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 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즉 성경이 사울에게 이야기

하는 사람이 사무엘인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알아야 할 한가지는 이와 같은 사무엘의 등장은 이 신접한 여인의 요청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사울에게 마지막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것으로 보여진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울이라는 인물이 교만하여서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 하나님을 떠난 사울이 점점 그 악한 행위를 더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성경에서 그 유래를 찾아 보기 힘든 죽은 영혼을 불러내는 일을 위해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곳에서 내일 죽으리라는 예언의 말씀을 들은 사울이 그 마지막 기회에도 회개하지 않고 그 다음날 전쟁에 나가 죽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울은 사무엘의 말을 들었을 때 두려움에 떨며 엎드려졌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사실 사울은 이 때라도 얼른 자복하고 회개하여 하나님께 나아가 자비와 긍휼을 구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역대하 33장13절에 보면 유대 왕 중에 가장 악한 왕이라 할 수 있는 므낫세가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환란을 당할 때 므낫세는 하나님께 회개하였고, 그가 하나님께 회개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므낫세의 기도를 받으시고 그의 간구를 들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겸손히 회개하고 돌아올 때 우리를 기꺼이 용서하시고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에스겔 18장 21-22절에는 악인이라도 죄에서 떠나 돌이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범죄한 것을 기억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32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우리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 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죄인인 우리 인생들이라도 모두가 다 그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구주로 믿어 영생을 얻는 것을 원하고 계신 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시고 모두가 다 겸손히 자복하고 회개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